

http://dx.doi.org/10.17703/JCCT.2022.8.1.299

JCCT 2022-1-34

평생교육 시대에 따른 대학의 역할 변화

Changes in the role of universities due to the age of lifelong education

최손환*

Choi Son Hwan*

요약 오늘날 평생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 평생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예전처럼 평생교육이 여유 있는 계층의 여가 교육 중심, 혹은 단순히 기술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환경변화와 고령화 시대 길어진 생애 주기에 맞춘 평생교육 기관으로서 새지평을 여는 대학의 재구조화 된 모습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제 대학은 대학 자체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특히 성인학습자들은 그 지역사회의 발전에 든든한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이들이 더욱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사회에 나가서는 지역사회에 재능을 환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향후 대학은 적극적으로 성인학습자들에게 대학 문호를 개방하여 평생교육의 중심에 대학이 자리매김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교류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평생교육 패러다임 전환, 대학의 역할, 지역사회와 대학

Abstract Today, the paradigm of lifelong education has changed, emphasizing the role of universities as a lifelong educational institution. Re-opening a new horizon as a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 that is not only centered on leisure education in the hierarchy where lifelong education can be afforded as before, or simply in line with changes in the social environment and the lengthened life cycle of the aging era. Let's propose a structured figure. Universities now have to create a virtuous circle structure that coexists not only with the role of the university itself, but with constant interaction with the local community. Adult learners, in particular, play a strong role in the development of their communities, so they are educated at the university to grow further and create structures that can return talent to the communities that go out into society. I should go. In the future, the university will actively open its doors to adult learners, position the university at the center of lifelong education, and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community, it will have to interact and cooperate with the community.

Key words : Lifelong Education Paradigm Shift, University Role, Community and University

1. 서론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그동안의 산업혁명과는 다르게 생활 전반에서

엄청난 변화와 혁신을 체감하게 한다. 변화의 진행속도와 범위, 규모, 그리고 발전 정도와 전파 속도는 그 어느 때의 산업혁명 보다 빠르게 전개 된다. 이처럼 급변하는 사회에서 나아가기 위한 지식과 기술의 수명은 상당히

*정희원, 대구한의대학교 화장품제약자율전공 조교수 (제1저자)
접수일: 2021년 12월 31일, 수정완료일: 2022년 1월 5일
게재확정일: 2022년 1월 8일
(이 논문은 2019년 대구한의대학교 평생교육 한일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을 수정·보완 한 것임.)

Received: December 31, 2021 / Revised: January 5, 2022
Accepted: January 8, 2022
*Corresponding Author: shchoi@dhu.ac.kr
Cosmetics & Pharmaceutical Engineering Major, Daegu Hanny Univ, Korea

단축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워야 할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전 지구적으로 인구 생태학적 변화가 급격히 전개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를 이끄는 것은 의료기술과 생활수준 개선으로 인간 수명의 연장 과 저출산, 핵가족화에 동반한 고령화 사회의 급격한 진행이다. 고령화 사회에 늘어나는 중고령자에게 그들의 생애 주기별, 사회 계층별 학습 수요를 충족하여 제 2 인생 설계를 위한 학습 지원을 다각적으로 구성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이다[1]. 이처럼 사회 환경과 인구 생태학적인 변화는 새로운 개념의 학습 시대가 펼쳐야 하는 당위성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평생교육이 보편화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 사회는 90년대 후반의 IMF이후 모든 국민들이 노력하며 상당한 양적인 성장을 가져왔다. 하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 양적인 성장에 부합하는 질적인 성장과 변화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발전에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잠재성장률의 감소와 일자리 수의 부족, 글로벌 경쟁력의 약화,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의 도래와 생산인구의 감소,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등을 들고 있다. 특히 고령인구의 증가는 향후 한국사회가 당면하게 될 다양한 문제들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인 난제로 여겨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 이상인 고령화 사회(ageing society)를 넘어, 2026년 경에는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이상인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2]. 이러한 현실은 우리 사회의 질적인 변화와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걸림돌이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중고령자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통하여 질적인 변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1]. 특히, 한국 사회에는 다른 나라와는 차별화된 특별히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회 집단과 계층 군이 있는데 이들은 베이비붐 세대, 다문화 배경 인구, 조기 퇴직자, 경력단절 여성, 실직 중고령자 등이다. 이들은 각기 다른 생애 주기와 그에 따른 필요에 놓여 있으며 이들에게 적합한 맞춤형 평생학습의 기회 제공으로 그들의 후반기 인생을 행복하고 보람되게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복한

삶을 위한 평생학습 설계와 맞춤형 평생학습 기회 제공, 학습과 일의 연계 체제 구축, 학습과 사회 참여 연계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3].

1980년대 평생교육과 관련된 법(당시는 사회교육법)이 제정된 이후 2018년 제4차 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이 세워지기까지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은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다. 사실 그동안 평생교육은 일반인들에게 문화와 여가교육, 스포츠교육 등 취미나 여가를 즐기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하지만, 2013년 '100세 시대 국가 평생학습 체제 구축'이 국정과제로 설정되면서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이전과는 다르게 평생교육이 대학과 지역사회 학습기관이 협력하고 연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좀 더 견고한 교육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

본 연구에서는 평생교육과 대학의 역할 변화에 대해서 이론적 문헌과 각종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평생교육이 여유 있는 계층의 여가 교육 중심, 혹은 단순히 기술 교육 중심이 아니라 시대사회의 환경 변화와 고령화 시대 길어진 생애 주기에 맞춤과 동시에 고등교육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대학의 재구조화 차원에서 평생교육의 새지평을 여는 운영의 확장된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사회 환경의 변화와 평생교육

1. 인구구조의 변화와 평생교육의 강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UN에서는 한 국가의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이상 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인구구조에서 고령인구의 증가 속도는 각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1. 주요국의 고령화 단계 및 소요 연수

Table 1. Aging stages and required training in major countries

	도달연도			소요연수	
	고령화 사회 (7%이상)	고령 사회 (14%이상)	초고령 사회 (20%이상)	고령화사회 → 고령사회 도달	고령사회 → 초고령 사회도달
한국	2000	2017	2026	17	9
일본	1970	1994	2005	24	11
독일	1932	1972	2010	40	38
미국	1942	2014	2032	72	18
프랑스	1864	1979	2018	115	39

* 출처: 김주영, 조진한(2012)의 연구

위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은 1942년 고령화 사회에 도달하였고, 2014년 고령사회에 도달하였으며, 2032년경에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프랑스는 1864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1979년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18년경에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속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초고령사회의 도달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처럼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 속에서, 경제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평생학습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의 마련이다.

제조업 인력 고령화와 정년연장의 상황 속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스웨덴의 사례에 기반한 평생교육의 강화를 주장한 연구도 있다. 평생교육을 통해 근무형태 조정과 근무시간 단축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성인 학습자의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제안하였다[4]. 또한 현재의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동생산성의 제고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평생학습 참여율이 유지된다면, 고령화로 인해 평생학습 참여율이 저조해 질 것으로 예측하고, 평생교육 시스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주문한 바 있다[5].

이처럼 인구구조의 변화와 고령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는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평생 현역으로서 근로를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일 뿐만 아니라, 퇴직을 하더라도 노인교육과 자기개발 활동을 통해 경제적인 부가급여를 수혜할 수 있는 기회이자, 삶의 질을 제고하면서 즐겁고 행복한 노년시절을 보낼 수 있는 방안이 된다.

평생교육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여가복지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평생교육 공급주체와 내용을 다양화하고 민간과 공공의 역할 분담체계를 명확하게 확립해야 하고, 향후에는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인 평생교육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6].

2. 환경변화와 평생교육 필요성의 변화

과학기술의 발달과 인구 구조의 변화, 그리고 사회

요구의 증대, 이에 따른 사회 제 영역에서의 다양한 질적인 변화는 평생교육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아래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 환경이 변하고 이에 상응하는 평생교육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표 2. 환경변화에 따른 평생교육의 필요성 변화
 Table 2. Changes in the need for lifelong education due to changes in the environment

영역	변화의 내용	평생교육의 필요성 변화
새로운 기술의 발달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함에 따라 사람의 사회생활과 사고방식이 변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과학기술 활용을 위한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할 수 있는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이 필요
사회변동과 직업의 변화	생계유지, 자아실현,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는 직업의 내용과 형태가 변화하고, 사회변동에 따라 새로운 직업 출현	일자리와 직무를 포함한 직업의 형태와 필요능력이 수시로 변화하기 때문에, 미래 직업세계에 대응할 수 있는 평생교육 시스템이 필요
소득불평등의 심화	소득분포에 따른 재분배 기능 약화로 계층간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양극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구성원의 평생학습 참여율 제고 및 학습기회와 학습비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
인구구조의 변화와 고령화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인구구조가 변화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 투자가 급격하게 확대	급격한 고령인력의 증가에 따라, 지속적인 능력개발과 자기개발 활동을 통해 일할 수 있는 기회 증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필요
이민자 증가와 사회통합	국내 체류 외국인력의 증가에 따라 이들의 사회적응, 직업기회 제공, 시민의식 함양 등과 사회통합 문제가 부상	장기 체류 외국인력에 대한 사회적응, 직업기초능력, 문해교육, 민주시민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을 통해 사회통합 촉진
복지수요의 확대	사회보험시스템의 확대 요구와 복지프로그램 요구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정책 방안 마련 시급	복지 수요 확대에 따라 평생교육의 필요성도 동반하여 증가, 평생교육 참여 기회 확대 자체가 복지라는 인식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

※ 출처: 김태준 외(2016)의 연구

이처럼 사회 환경은 새로운 기술의 발달, 사회변동과 직업의 변화, 소득불평등의 심화, 인구구조의 변화와 고령화, 이민자 증가와 사회통합, 그리고 복지 수요의 확대 등의 관점에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생교육은 변화하는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습기회와 학습비용 차원에서 양극화를 해결해야 할 것이며, 고령인구를 대상으로 능력 및 자기개발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주어야 한다. 또한 다문화 가정 등 이민자들의 증가에 따라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우리 사회

적응교육을 시킴으로써 사회통합도 추진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평생교육을 통하여 복지국가로서 한발 다가설 수 있고 구성원 모두가 평생교육이라는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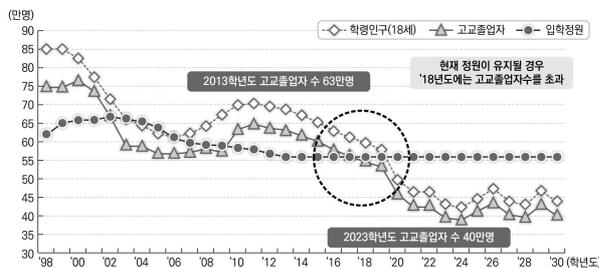
III. 평생교육과 대학

1. 대학의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역할

오늘날 평생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 평생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특히 제4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서 고등교육 기관에서 성인친화형 교육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학제를 바꾸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성인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국민의 생애 단계, 경력 등을 감안한 맞춤형 직업·진로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이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사구조를 유연화하여 성인학습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7].

또한 대학을 둘러싼 인구생태학적 환경도 많이 변하여 오늘날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아래의 [그림 1]에서와 같이 학령기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대학은 성인학습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여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성인학습자들을 위한 단과대학을 만들어 성인학습자들을 위한 평생학습 중심 대학의 문을 넓히고 성인학습자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 출처: 교육부(2014)의 자료

그림 1. 대학 입학자원 규모 전망 및 입학정원 변화 추이
Figure 1. University admission resource scale outlook and changes in admission gardens

이처럼 범정부 차원의 정책적 방향이나 대학을 둘러싼 환경적인 이유 이외에도 노년층과 중년층의 평생교육

요구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노후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중년층은 지식 획득, 여가 활용, 건강관리 등으로 보고 있어서, 건강관리, 여가 활용, 지식 획득에 중요성을 둔 노년층과 차별화되며, 또한 중년층은 노년층과 달리 견학이나 실습 위주의 방법으로 건강교육, 운동·취미 교육, 인간관계 교육, 노인복지 교육, 경제 교육, 자원봉사 교육 등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희망하는 교육기관으로도 기존의 복지관이나 노인대학 외에도 다양한 지역 교육 문화시설이나 관공서, 종교기관, 그리고 대학 평생교육원에 대한 선호를 나타내고 있다. 또 중년층 안에서도 고학력, 저연령, 고소득일수록 대학의 평생교육원 교육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노인복지관이나 노인대학에서 이루어져왔던 단순 취미 여가 중심의 평생학습에만 익숙한 현재 고령층과 달리 중·고령층은 직장이나 전문적인 평생교육 기관에서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경험을 해 본 적이 상대적으로 많아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앞으로 중·고령층 대상의 평생교육에 더 다양한 통로를 활용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고 그 역할을 대학이 담당해야 한다[8].

인구 고령화는 양적인 고령화뿐 아니라 질적 고령화를 수반한다. 과거에 비해 수명이 연장되고 고령층의 수가 증가하는 양적 고령화를 넘어, 그 고령층의 경제적 수준, 교육 수준, 사회참여 수준, 건강 수준 등의 향상으로 사회 안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지위와 권력이 확대된다. 평생학습 면에서도 학습자들의 교육 수준 향상은 물론이고 학교 교육 이후 다양한 평생학습 경력의 확대도 학습자들의 평생학습 요구가 훨씬 더 다양해질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전통적인 평생교육 기관 즉 비형식 교육기관뿐 아니라 대학 같은 형식 교육기관으로까지 평생교육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9].

아래의 <표 3>과 같이 경제적 형편이 어렵거나 부모의 사고방식 때문에 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어려웠던 중·고령층이 배움을 지속하고 교육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상급학교로의 진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대학이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 있다. 대학 평생교육 기관들이 수요 증가에 따라 급격히 양적으로 팽창하는 과정에서 상업주의적인 경향을 보이게 되었는데 이는 평생교육 본래의 목적과 이념에 기초하여

평생교육원을 설치하여 운영하기보다는 대학의 재정 수입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다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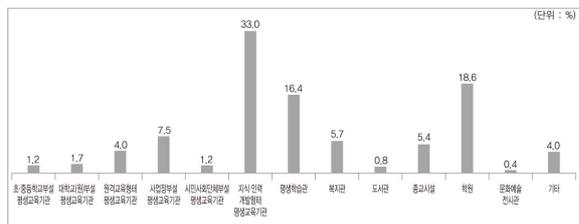
표 3. 중고령층의 교육기회 충족 및 미충족 원인
 Table 3. Causes of Satisfaction and Unsatisfaction of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Middle-aged and Elderly People

연령	충족	미충족	미충족 이유						
			경제적 형편	학교가 멀어서	입학 시험 실패	부모의 사고 방식	집안 돌봄	질병 장애	기타
40~49	55.8	44.2	53.2	1.8	23.1	11.7	7.9	1.3	0.9
50~59	41.5	58.5	60.4	2.1	8.0	19.0	8.8	1.2	0.5
60이상	27.5	72.5	51.4	2.3	1.7	31.7	10.6	0.7	1.6
65이상	25.2	74.8	48.6	2.5	0.9	34.6	10.6	0.7	2.1

※ 출처: 통계청(2014), 양승실(2015)의 연구 재인용

또한 대학 평생교육 기관의 프로그램은 대학 정규교육 프로그램에 비해 비하되거나 질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대학이 주도하는 학습과정의 질 관리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대학 평생교육 기관에는 대학이 주도하는 교육 프로그램임에도 대학 내 전임 교원의 참여율이 매우 낮아, 프로그램 내용 면에서도 인문교양 및 예체능 프로그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11].

대학이 평생교육기관으로 더욱 더 큰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는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에 의하여 그동안 충분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에 의하면 대학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비형식교육을 기준으로 평생교육 전체 중 그 비중이 1.7%에 불과한 실정이다. 물론 최근에는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을 실시하여 대학의 평생교육 참여를 위한 제도적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 [12].



※ 출처: 박인섭 외(2018)의 연구

그림 2. 평생교육 참여 현황
 Figure 2. Participation in lifelong education

우리로 이러한 부분을 잘 해결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되고 있는 대학 주도의 평생교육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프로그램의 질적 관리와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 혹은 좀 더 적극적으로 성인학습자들을 위한 단과대학을 만들어 시대적 요구와 지역사회의 필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학중심의 평생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평생교육의 허브로서 대학교육

그동안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은 대학부설평생교육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대학의 전문 학문 분야와 연계 미비, 학력 취득 기능 미비, 학문과 연결한 전문 자격 취득 미비 등으로 대학의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의 요구를 충족하기에 다소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와 학위과정과 연계 부족으로 학문의 지속성이나 전문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대학의 평생교육을 한 걸음 더 발전하고자 초창기 평생학습 중심대학 사업은 대학의 체제 개편형과 프로그램 중심형으로 이원화하였다. 이후 대학 전체가 평생학습을 주도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 주체로 전환하기 위한 대학체제 개편사업이 확대되면서 성인 학습자를 위한 학위과정 운영 트랙이 별도로 형성되어 가면서 평생학습이 대학 중심에 자리하고 점진적으로 성인 학습자가 대학 내의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왔다[9].

이는 제2차 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2008~2012)의 발표와 함께 ‘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라는 국정 과제가 진행됨에 따라 평생교육의 허브로서 대학의 역할을 기대한 것이다. 사실 대학은 지역사회에 있어서 교육인프라 측면에서 보면 다른 어느 기관보다 잘 갖춰져 있다. 하드웨어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요소에 있어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위한 평생교육의 전문기관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교육적인 좋은 환경을 지역사회에 개방해야 한다. 이것이 대학이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길인 것이다.

사업명은 조금 달라지긴 했으나, 2008년 평생학습중심대학육성사업을 시작으로 2018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에 이르기까지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평생교육 지원은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성과를

지금부터 그 어느때보다 평생교육이 중요한 시기이며 취미생활과 여가활동 차원의 교육을 뛰어넘어 재직 및 전직교육에 이르기까지 보다 전문화된 교육을 요구한다. 이에 전문인력과 조직, 그리고 좋은 교육환경을 가진 대학이 평생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시점이다. 특히 평생교육의 허브로서 대학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평생교육기관 및 민간단체와 통합체제를 구축하여 질적으로 우수하고 체계적인 새로운 평생교육패러다임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IV. 결 론

신영복은 『나무야 나무야』에서 “대학은 기존의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종속의 땅이기도 하지만 그 연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가능성의 땅이라고 하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대학은 학령기 학생을 대상으로 경주에 따라서는 지적인 탐구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한 것도 사실이다. 이제 대학은 대상부터 탐구범위, 그리고 그 역할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특히 평생학습사회로 들어선 지금 사회와 교육패러다임이 전환된 오늘날 대학의 역할도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

대학은 우수한 교직원과 다양한 시설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양질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역량이 있다. 이제는 이를 성인학습자 및 지역사회를 위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학령기 인구의 감소로 입학 자원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으나 이에 비하여 대학 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인학습자 자원은 비교적 풍부하기 때문에 대학은 이에 대비하여 성인학습자 친화형 대학운영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물론 단순히 성인학습자를 모집하고 학생수만 늘린다면 이는 대학이 당연히 수행해야 할 사회적 책무성을 간과하는 것이 될 것이다. 대학은 이들이 보다 전문성 있는 인력으로 성장시킴으로서 개인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에도 충분히 기여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성인학습자들이 수월하게 대학진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성화고졸재직자특별전형의 재직연한을 축소하거나, 인문계고졸 출신자도 성인학습자전형으로 진학이 가능하게 하거나, 다양한 선행경험학습에 대한 학점인정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대학의 학사조직을

보다 성인학습자 친화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단과대학을 만들고 학사운영 조직을 본부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전담 조직으로 개편하는 등 성인학습자 친화형 편제, 교직원, 시설 등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성인학습자들에게 학위취득 과정을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질의 교육과정운영과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대학에서 배운 재능을 이들이 다시 지역사회로 환원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사회가 급변하고 고령사회로 넘어간 현실을 충분히 인식하여 이제 대학은 고등교육 기관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성인들에게도 어떤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지역사회와 지역민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새로운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References

- [1] Mi-ryeong Kim, Joo-hyun Kim, Jeong-geun Kim, Heung-Kwon Yang, Hyun-gi Lee, Ki-young Lee, “Baby boom generation aging preparation and quality of life”, Hakjisa, 2015.
- [2] Tae-jun Kim, Gu-seop Kang, Jin-hee Kim, Young-ran Hong, Hyun-yong Ahn, Young-min Lee, Eun-kyung Lee, Ji-eun Jang, “A Study on Trend Analysis of Global Education Reform in the 21st Century (IV): Establishment of a Lifelong Education System for Response to an Aging Society”,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6.
- [3] Dae-bong Kwon, “Employment of middle-aged and elderly people and lifelong learning”, Wonmisa, 2008.
- [4] Joo-Young Kim, Jin-Hwan Cho, “Manufacturing workforce aging and retirement age extension”, Industrial Research Institute, Issue paper 291, 2012.
- [5] Chang-yong Song, Bo-kyung Park, “Issues and Policy Tasks in the Age of Aging”, HRD review, pp 14-16, 2011.
- [6] Yoon-kyung Lee, Ju-hee Yeom, Nam-hee Hwang, Chan-mi Yang, “Current status of old-age education and policy tasks from the perspective of lifelong education”,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3.

- [7] Business report of the Special Committee o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2018.
- [8] Jeong-ran Han, Young-hee Won, Seong-hee Park, Il-seon Choi, “Needs for Aging Education of the Middle Aged and the Older Adults”,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Vol. 15, No. 4, pp. 131-161, December 2009.
- [9] Seung-sil Yang, Heung-kwon Yang, Seon-hee Kim, Hyeon-su Kim, Han-ran Han, Young-hee Lim, “Measure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lifelong learning in an aging society”,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5.
- [10] Don-min Choi, “The Ways to Improve the Function and Role of Universities for Adult Learners”,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Vol. 9, No. 3, pp. 27-46, August 2013. DOI : 10.26857/JLLS.2013.12.9.3.27
- [11] Hong-sun Choi, “Lifelong learning center University’s lifelong learning system conversion plan by analyzing the results of the university’, Kwangwoon University Master’s Thesis.
- [12] In-seop Park, Jae-hyun Kwon, Jong-oh Park, Se-hwa Kim, Chang-hwan Oh, Jin-hwa Kim, Young-seop Hyun, “Strategies and tasks for rebuilding lifelong learning system in accordance with paradigm shift in future society”,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 [13] Son-hwan Choi, “A study on Educational Tasks and the Management of Universities to Respond to changes in Future Society”.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6, No. 3, pp. 217-224, August 2020. DOI : 10.17703/JCCT.2020.6.3.217
- [14] Young-Bok Shin, “It’s a tree. It’s a tree”, Dolbegae, 1996